

## 종합기획 2. 교육분야 ① 전공·교양교육

# 전공필수제로 전공교육 강화해야

## 전공 기초실력 부실 심각, 개선방안 마련 시급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2005학년도 교과과정 전면 개편이 실시됐다. 하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양필수 과목의 학점이 상향 조정 되고 그동안 타 대학에서 실시하지 않던 새로운 교양필수 과목이 신설되는 등 교양 교과 과정에 관한 개편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전공 개편안의 경우는 △교과목의 신설 또는 폐지 △교과목의 명칭 변경 △개설 학기, 학년 조정 등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개편 결과는 지난 96년 학부제 도입 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전공 부실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여 문제점을 지적된다. 이에 더해 이러한 학생들의 전공 기초 부실 문제가 필수 전공 제도의 부재, 복수 전공 기회의 다양한 확대 등으

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학교 측과 해당 학과 교수들의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 기초 부실 보완 위한 제도 마련돼야=이러한 전공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 부족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CJ 그룹의 한 인사담당자는 "관련 업무에 연계된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우대 선 발해도 그에 대한 전공 기초 지식 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학생들의 전공기초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1, 2학년 전공 과정에 해당하는 전공기초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3, 4 학년의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 개개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공필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과별로 전공필수제를 운영했으나 학부제 도입 이후,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이에 현재는 공과대와 정산대, 법대에서만 전공필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공 필수제도의 부재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기초 부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이해를 위해 꼭 이수해야 할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학점을 얻기 쉽거나 이해가 쉬운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영일(건축학) 공과대학장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전공 교육의 부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과 특성에 맞는 전공필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의 전공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해당 수업의 일정 학생수 보장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여문 수업을 통해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전공필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면으로 이어짐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정년보장교수 호봉 승급 내규 마련

## 장학수혜 · 성적경고 기준도 상향 조정

지난 4일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 △장학규정 △학사내규 △고시반운영규칙 등을 포함하는 규정 제 · 개정 및 폐지(안)이 교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년보장교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제고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서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을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봉승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학교는 정년보장교원이 전체 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수의 연구업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증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년보장교원 호봉승급에 관한 내규 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소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만 50세 이하의 교수= 2년간 240점 △만 51세에서 만 55세 이하의 교수=2년간 180점 △만 56세에서 만 60세 이하의 교수=2년간 140점 △만 61세 이상의 교수=2년간 80점이며 평가점수의 50%이상은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어야 한다. 승급기준을 충족하여 승급한 경우 다음 년차에서는 자동 승급하며, 승급하지 못한 교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장학규정은 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총장장학 수혜기준을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신입생장학을 매년 총장이 정해 신입생 모집요강에 발표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생협복지장학도 역시 교

육강화의 일환으로 수혜기준을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사내규는 성적경고 기준이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성적경고로 제적된 경우 재입학 요건이 강화됐다. 즉 재입학을 할 때,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 것이다.

한편 고시반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과 고시반 관련 행정처리 절차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 고시반운영규칙이 전면 개정됐다. 고시반, 고시지도위원회, 지도소위원회,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고시반 관련 행정처리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6개 단과대 학자 요구안 제출

## 학생복지실, 적극적으로 수용 할 계획

불교대, 이과대, 경영대, 생자대, 정산대, 사범대 6개 단과대가 지난 달 학생과에 학자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각 단과대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증가를 위한 것이다. 학생복지실은 단과대 학생회의 학자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오는 12일 정보관리실, 학사지원실, 시설관리팀 등 관련부서와 학생회가 함께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대위는 다음 주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에 새로 선출된 단위의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함께 총학생회비대위를 세우고 총학생회비대위 차원의 학자요구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각 단과대에서 제출한 학자요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등록금 7%인상에 대한 설명 불교대 세미나실 공간문제 논의 등
이과대	실용영어 등 교필과목 토익, 텡스, 토폴로 전환 과 별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등
경영대	등록금 7%인상에 대한 설명 수강신청, 동국관 공간이동, 사물함 충전 등
생자대	실용영어 등 교필과목 토익, 텡스, 토폴로 전환 낙산학사 시설보수 등
정산대	강의평가 시기조정과 결과 공개 전일교수 확충,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 등
사범대	등록금 7%인상에 대한 설명 후문 지역 매점 설치 등

# 학문분야 평가 지원 대폭 변경

## 평가 결과 따라 학과별 차등 예산 지급

예산운용시스템 변경에 따라 학문분야 평가대상학과 지원방향도 올해부터 대폭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임시적이고 일괄적이었던 지원방안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학문분야평가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제가 병행된다. 학과별 예산 차등지원은 학과 자체평가보고서 및 발전계획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팀은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편된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대상학과 기관평가 수행 △관련부서 논의 및 지원정도 결정 △기관평가결과 및 논의결과에 따른 학과 선지원 △학과 학문분야평가 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학과 차등 보상이다.

따라서 평가대상학과는 △교수 증원계획서 △공간확보 및 이용계

획서 △환경개선 요청서(실습실 및 기자재) △평가지원금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팀은 평가대상학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관해 관련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3위 이내로 판정된 학과는 교내 특성화 사업 우선 지원 및 별도 포상금을 지원 받게 된다.

각 학과는 기관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학문분야평가 자체평가 수행계획은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행계획서 양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학문분야평가 대상인 학과는 국문학, 문예창작학, 중어중문학, 일어일문학, 사회학, 식물자원학, 산림자원학과이다. 평가영역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 등이다.



봄을 반겨요... 지난 8일 동아로를 내려오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이다. 동아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처럼 여학생들의 미소가 싱그럽다.  
황우성 기자 hjs228@dongguk.edu

## 김소연 교수 국책사업 선정 미래원천 기술사업 추진

환경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인 미래 원천기술 사업에 우리학교 김소연(화학) 교수가 선정됐다.

김소연 교수는 미래 원천 기술사업의 고정밀 센서 기술분야에서 "압타머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통한 고감도 신규수질마커 개발 및 수질 오염 정량감사용 압타머 칩 개발"이라는 과제로 10년간 총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차세대 성장동력 단핵집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바이오 칩 기술과 압타머 기술을 융합하여 수질 감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래 원천기술 사업은 환경 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산업(ET)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1조원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2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 제 43회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 및 심사**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1일(토) 10시 30분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 시상**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작품제출기간**

2005년 5월 2일 ~ 5월 21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과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il.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

수요일,  
동국의 음악에 젖는다...

동국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엽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에 흠뻑 빠져봅시다!!

2005학년도 1학기

##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4월 13일(수) 12:00 중앙도서관

- 클래식기타 동아리 현어울**

Offenbach Orphee aux enfers Overture  
Ketelbey, A.W In a Persian Market
- 첼로 홍지영**

바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3번 중 푸렐류드  
엘가 사랑의 인사  
줄리어드 예비학교, 줄리어드 음대, 예일대 대학원 졸업  
삼성 노블커티니 음악영재예비학교 중감독
-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

J. Pachelbel Canon  
W.A.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Serenata K525)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 '고전의 이해', 지속적 보완책 필요

## 학습 난이도, 수강인원 문제 ... 지식 향상은 긍정적 평가

이번 학기부터 신설된 교양 필수 강좌 '고전의 이해'가 강좌 개설 당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신입생 320명(남:181명 여:139명 전체신입생 대비 10%, 오차범위 0.5%)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전의 이해'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 교수 배정에서부터 교재 제작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돼 시작부터 빠그덕거렸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나는 강의시간에 성실히 수강했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16%), 그렇다(25%), 보통이다(32%)로 답해 총 73% 학생들이 수업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의에 필요한 예·복습을 철저히 했다'는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34%), 전혀 그렇지 않다(28%)로 답한 학생들이 과반수를 넘는 62%를 차지했다. 이는 '고전의 이해' 강좌 특성 상 수업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준비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의 학습 이해 정도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문항에는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28%), 전혀 그렇지 않다(12%)로 답해 수업의 난이도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전의 이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 교수는 "수업 교재로는 난해하거나 분량이 상당한 저작들이 포함돼 있어 고전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적어도 1학기 고전의 이해 I 수업에서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커리큘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에 는 수업 당 학생수가 많고 이로 인해 교실이 비좁아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강좌수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원의 관계자는 "학교도 '고전의 이해' 강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워크숍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좌당 수강인원 감축과 난이도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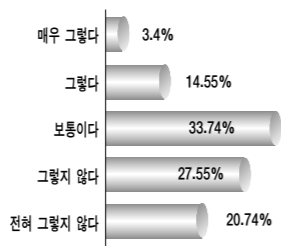
한 교재편성 등 강좌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강의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강의의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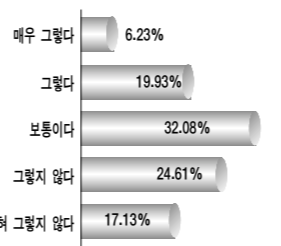
또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에 는 수업 당 학생수가 많고 이로 인해 교실이 비좁아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강좌수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원의 관계자는 "학교도 '고전의 이해' 강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워크숍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좌당 수강인원 감축과 난이도를 고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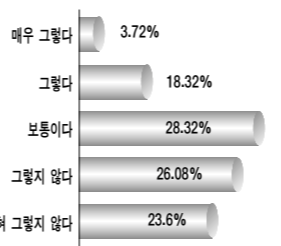
▶학생의 학습 이해 정도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수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강의는 전반적 나의 학습 성취에 도움을 주었다.



# 어학 특강 접수 25일부터

## 패스제·모의토익 접수는 15일까지

'2005 봄 어학특강'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해화관 1층 국제교육원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특강 강좌는 △회화Ⅰ단계 △회화Ⅱ단계 △회화Ⅲ단계 △Interview&Presentation Skills △Writing △중국어 초·중·고급반이 열리며 영어강좌는 각 반 15명, 중국어 반은 각 반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강좌는 다음달 9일 개강해

오는 6월 10일까지 한달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제교육원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영어패스제 대상자 및 일반 모의 토익 신청자를 대상으로 '패스제 토익'과 '모의토익' 시험 접수를 받는다. 응시료는 5천원이며 반영합사진 2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은 이번달 23일 오전 10시 해화관에서 치러진다.

# 직원노조, 전사노맹 가입

## 금주 내 임금 단체협상 시작할 것

지난 1일 전국대노동조합 등 10개 대학이 임의총회를 열어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가입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는 전국대노동조합에서 몇 년째 사립대학 관련 사항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결정이며 이미 연세대, 이대, 중앙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국사립대학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상태이다.

또한 이외에 △노동조합 임원 등의 잔여임기 보장 △동국대학교 노동조합 규정 제정 안건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임금 단체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며 △주5일제 근무 △사내 보육시설 설치 △직급승진제도 등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미제출로 관련업무 차질

## 미제출시 각종 불이익 받게 될 듯

사진출석부와 학생증 등 여러 곳에 활용되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수차 전화를 하고 심지어 학과 조교가 직접 사진을 찍어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까지 사진 미제출 인원은 총 3,700여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진 미제출자들은 증명서 발급, 도서관 출입 통제, 수강신청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 마라톤 강습회 오는 14일 열려

오인환 삼성전자 마라톤팀 감독 초청 강습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팔정도에서 열린다. 이튿날 강습이 끝난 후에는 남산 산책로에서 실전 연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라톤클럽 창립을 많은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습

회야 끝난 후에는 마라톤클럽 창립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달리기 좋아하는 동국인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총 1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마라톤클럽은 연습기간을 거친 뒤 우리학교 이름을 달고 수도권에서 열리는 규모가 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신규교원 초빙제도 대폭 변경돼

## 교원확보율 등 근거해 초빙분야 선정기로

2005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 초빙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과 더불어 교육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규교원 초빙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초빙분야 선정 기본 방향 △채용 심사기준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2005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 초빙부터 학과별 재학생 수에 근거한 교원확보율과 전공 관련 지표를 기존의 운영정원 제도에 우선하여 초빙분야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대학 교원초빙은 학과별로 정해져 있는 운영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정원 기준은 교원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적 수요가 높은 학과의 교원충원을 어렵게 하고 상대적으로

로 수요가 없는 학문분야에 필요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포스트 BK21사업 등 국고지원과 연계된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법대 교수 10여명 정도를 초빙해 로스쿨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교원 초빙 분야 선정 변화와 관련해 인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앞으로 학문공 및 교양강좌의 수강생 규모 등 객관적 지표들을 기존의 운영정원 제도에 우선하여 초빙분야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대학 교원초빙은 학과별로 정해져 있는 운영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정원 기준은 교원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적 수요가 높은 학과의 교원충원을 어렵게 하고 상대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학위취득자 뿐 아니라 학위취득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교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과의 교원충원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논문실적 위주의 1차심사제도를 도입해 부직격자를 서류심사로 가려내고 해당학과 의견이 보다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채용심사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2005학년도 제2학기 신규교원 초빙제도는 계속해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빠른 금주 중으로 신규교원 초빙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2006년도 3월 1일까지 전체 교원확보율 5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칭찬합니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 ④ '멋진' 대학생 남상욱(문장4) 군



4년이란 대학생활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각자가 활용하기 나름이란 소리다. 대학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회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억다운 추억 하나 없는 대학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 누구보다 멋진 대학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 남상욱(문장4) 군이다. 그는 지난해 대산문화상 희곡 부문에서 상을 수상해 우리학교의 명예를 높이기도 했다.

-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많이 쓴다는데.  
- 쏙스럽다. 비판의식이 강한 것은 아닌데,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현상을 관찰하는 편이다. 지난해에

쓴 희곡 '400번째 행방불명'도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작품 중 하나이다. 로또 열풍이 한창 불고 있던 때였는데,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다.

-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 글 써서 먹고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책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한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꿈이나 결심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시작했다면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2005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1. 수확대학 : 캐나다 UBC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 파견기간 : 2005. 9. ~ 2006. 2. (6개월)
3. 선발인원 : 10명
4. 지원자격
  - 가. IT관련 전공자
  - 나. 현재 학부과정 3~6학기 재학생
  - 다.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라. TOEFL 500점(CBT 173점) 또는 TOEIC 600점 이상 취득자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자는 지원 불가
5. 파견조건
  - 가. 본교측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를 장학금으로 지급(감면함).
    -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수확대학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함.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8까지로 함.
  - 나. 캐나다 UBC측
    - 1) 수확분야 : Information Technology(ITT) 및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ICS) - 총 5개월 과정
    - 2) 수확경비 : 자비부담
6. 전형방식
  - 가. 학부성적평가 50%
  - 나. 면접평가 50%
7.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다. 어학능력인증서(TOEFL·TOEIC) 1부
8. 전형일정
  - 가. 원서접수 : 2005. 4. 25(월) ~ 5. 9(월), 국제교류실
  - 나. 면접 : 2005. 5. 12(목) 15:00 ~ , 국제교류실
  - 다. 선정자 발표 : 2005. 5. 16(월) 이후 개별통보

※ 본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설명회가 2005. 5. 4(수) 16:30 ~ 17:30, G204(해화관 2층)에서 열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해화관 1층)로 문의 바랍니다.

### 국제교육원

## 북핵문제 특별 강연

사회과학대학에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주요국 대사들을 모시고 특별강연을 실시합니다.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측의 시각만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태평양각국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므로 관심있는 동국인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주제 :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Prospects of the Six-Party Talks - 북핵문제와 6자회담
2. 일시 및 장소 : 4월 13일(수), 오후 2시 ~ 4시, 문화관 예술극장
3. 연사
  - Ambassador Van Vollenhoven(주한 네덜란드대사)
  - Ambassador David Taylor(주한 뉴질랜드 대사)
  - Maj. Gen. Thomas P. Kane (유엔사 부참모장 겸 주한미군 부참모장)
4. 참석대상 : 전 동국인

### 사회과학대학

## 졸업요건 영어패스제 토익시험(4월) 시행

1. 집 수 : 4. 6(수)~4. 15(금)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2. 시 험 : 4. 23(토) 10:00~12:30 해화관 1, 2층
3. 대 상 : 영어패스제 대상자 및 일반 모의토익 신청자
4. 접수시 지참물 : 반영합사진 두장, 신분증(본인만 접수 가능)
5. 응시료 : 5,000원
6. 시험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볼펜, 연필(사프)
7. 문 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8. 주의사항 :
  - 가. 10시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봄 기획강좌 문화기호학 그... 이론과 실천! Cultural Semiotics

찰스 S. 퍼스로 읽는 문화기호학 - 퍼스에서 문화기호학을 찾다(김영순)  
2강 4월 21일 (목) 오후 6시30분 ~ 8시30분 - 문화기호학의 생산적 미래(김영순)  
A. J. 그리마스로 읽는 문화기호학 - 문화기호학과 기호마케팅(백승국)  
4강 5월 4일 (수) 오후 6시30분 ~ 8시30분 -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백승국)  
유리 M. 로트만으로 읽는 문화기호학 - 문화기호학, 이론에서 실천으로 - 응용 문화기호학의 이론적 성찰: 사회체계이론과 브랜드 사회학(박여성)  
B강 5월 20일 (금) 오후 6시30분 ~ 9시30분 - 응용 문화기호학의 실천적 과제: LG, Samsung 및 독일 브랜드의 포지셔닝(박여성)  
\*B 강의에는 '함께 대화하기: 선생님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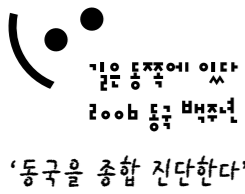
김사소개

대표강사: 김영순      강사: 김수환  
독일 베를린공대 문화기호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노어노문학과 석사  
독일 베를린자유대 문화학 박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문화기호학 박사  
현)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강사

강사: 박여성      강사: 백승국  
독일 뮌헨대 언어학 석사 및 박사      프랑스 리모주대 기호학 석사 및 박사  
독일 뮌헨대 기호학연구소 객원교수      프랑스 리모주대 기호마케팅연구소 초빙연구원  
현) 제주대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      현) 외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대우교수

강좌신청 접수기간: 2005년 4월 6일 ~ 4월 20일  
강좌신청 접수장소: 대학원 총학생회실(학술관 지하1층)  
수강료: 10,000원 (강의 전체자료집 및 수강카드, 기념품증정)  
장 소: 학술관 S201  
일 정: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문 의: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관 (02-2260-8761), 홈페이지 (www.dgugs.com)

### 대학원 총학생회



종합기획 2. 교육분야 ① 전공·교양교육

# 부실 부추기는 복수전공·전과제도 개선해야

▲복수전공, 전과 제도의 보완 필요해=우리학교의 자유로운 복수전공, 전과제도 역시 학생들의 전공 심화를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경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과가 타 대학들에 비해 복수전공과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인원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고려대와 중앙대에서는 주 전공의 부실을 막기 위해 최대이수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전과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복

수전공, 전과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교육 과정이 부실화 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단일 전공 최대 이수 학점이 축소되고, 복수로 이수하는 전공 이수 학점도 36학점으로 바뀌어 2개 전공 모두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도에 의해 복수전공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인기학과의 경우는 전공 수업 과정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수업 당 학생 수가 전공 수업임에도

100여명이 넘기도 해 이는 곧 전공 수업에 부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무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교수 선발 인원이 주 전공 학생들 비율에 맞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수전공학생들의 수까지 합친 비율에 따라 교수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대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복수 전공자들을 위한 분반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우리 학교 전과제도의 경우는 2학년 을 마친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로 한정되게 된다.

학과제를 운영중인 학과들의 경우는 1학년 때 전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전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무기획팀에서는 현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 부실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따라서 학교측의 제도적인 보완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의 전공 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역시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사설

###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 시급

지난 식목일, 우리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인 낙산사가 한층 잿더미로 변했다. 보물 동종과 원통보전, 그리고 홍예문 누각 등 건물 13중도 형태를 찾지 못할 만큼 변해 버렸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인 점과 불에 취약한 목조건물인 점도 알지만 문화재 손실을 막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화재 피해규모가 약 30억원이라고 한다. 또한 지금 많은 인원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 복구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번 화재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문화재 관리문제 점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 문화유적 손실과 후손들에게 좋은 유적을 남겨주려면 말이다. 우선 정부에서 각 사찰 등에 '목조건축물 화재예방법'을 만들어 문화재 손실을 막아야 한다. 스님들의 화재대비훈련, 사찰근처에 소화전 설치 등 대비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

한 해 사찰에서 징수하는 관람료는 300여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관람료의 사용처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 부분도 정부는 화재진압 대비 및 문화재 보수 등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종단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재 화재 예방에 무관심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의 단골 답사지이기도 한 문화유적지. 이 곳을 보면 간간히 낙서 등 훼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 문화재를 아끼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비교체험 ... 상록원 옆 남산기는 계단(왼쪽)을 올라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흙길(오른쪽)이 이어진다. 날씨가 포근해 지면서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 황중연(국어국문학) 교양교육원장 인터뷰

## “기초소양 위해 과목 개편할 것”



- 현재 우리학교 교양교육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실시된 교양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공과 교양 수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교양 교육과정이 전공 수업을 위한 기초 학문 탐구를 그 목적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교양 과목의 경우는 특정 지식에 한정되기보다는, 대학생으로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논술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포괄적인 인문학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일부 타 대학에 비해 교양 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커리큘럼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교양교육원에서 앞으로 주안점으로 두고 진행할 사업은 무엇인지.

= 현재 교양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교양 교과목 중 전공 기초와 관련한 과목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분리하는 방안이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순수하게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양 과목들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안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면 본격적으로 다음 해에 실시될 교양교과 과정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실시할 생각이다. 또한 교양 교과 수업에 전임 교수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안도 대해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교육 강화를 목표로 실시된 '2005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서 교양 이수 학점이 상향 조정되고 신입생들을 위한 '고전의 이해' 전공 필수 수업이 신설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이번 해 초 단행된 행정조직개편에서는 교양교과 과정을 전담 운영, 관리하는 독립 기구인 교양교육원이 신설됐다.

이에 황중연(국어국문학) 교양교육원장을 만나 현재 우리 학교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신설된 교양교육원의 역할은.

=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몇 해 전부터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원 등의 전담 기구를 운영하며 교양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교양교육 관련 부서가 독립적인 기구로 신설된 만큼, 다양한 교양 교과 관련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교양교과 과정 분석

## 학생의견 반영된 강좌 개설필요

최근 들어 몇몇 대학들이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학교도 교양교육운영실을 전담기구인 교양교육원으로 개편해 교육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한 전공기초지식에 한정된 것이 아닌 여러 분야의 기본소양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양필수 학점이 10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었다.

공과대(건축학전공 제외) 교양필수학점 역시 기존 6학점에서 10학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부분의 학생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교양 필수과목으로서의 필요성이 감소한 '컴퓨터활용과 실습'이 6명역으로 이동했지만 '고전의 이해1, 2'가 각 2학점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과대는 공통과목을 폐지하고 학과필수교과목으로 4학점씩(이론 3시간+실습 2시간) 5과목을 신설하고 총 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지정공통과목이 전공기초학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교양과목의 경우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해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부담없이' 듣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많다. 경희대의 경우 대학·계열·학부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기초성격을 살린 '계열교양'이 있어 전공공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준기(경제통상2)군은 "막상 전공과목을 들으려니 부담했는데 계열교양을 통해 부담감을 많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동일과목이 여러강좌 개설되면서 강좌별 강의내용과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과목이 여러강좌 개설됐을 경우 해당강좌의 교수 1인을 책임교수로 임명해 워크숍을 통해 강의방향을 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 워크숍을 통해 학교 측에 회의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개강하기 전 한번의 회의로 표준강의안을 만드는 점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강사는 "같은 강의를 여러번 진행하는 사람은 몰라도 처음 맡은 사람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책임교수제를 보다 확대해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작 교양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싶은가'를 반영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2003년도에는 총학생회에서 '좋은수업 만들기'의 일환으로 총 18개의 강좌개설을 요청해 학교 측에서 교수와 내용을 평가해 2강좌를 개설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로 정착되지 않아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한양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이런 강의 듣고 싶어요'라는 강의 신청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교무처의 유연택 계장은 "학생 투표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검토해 매년 2개정도의 강좌가 신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양강좌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제시해 서로 논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4.19혁명 기념 제36회 동국인 등산대회

▶ 일시 | 2005년 4월 15일(금) 10:00~15:00

▶ 장소 | 국립4.19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오전 9시 30분까지 국립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2대 운행)

▶ 참가대상 | 모든 동국가족

▶ 행사일정

행사 내용	장 소	시 간	유 의 사 항
4.19혁명 기념 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 10:00~10:20	09:50분 참가자 전원 기념탑 앞으로 이동하여 합동분향
개회식 및 출발	국립4.19묘지 내 광장	개회식 : 10:20~10:30	시간 엄수
중식 및 하산	대동문	중 식 : 12:00~13:30 하 산 : 13:30부터	자나친 음식 절대 삼가, 쓰레기 개안별 수거 후 도산사 코스로 하산

▶ 팀 구성  
•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재학생팀 : 해외연수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제출 - 심사 접수 반영)

-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
- 동아리 단체팀 : 20명 이상으로 구성

▶ 시 상

- 4인 1조팀
- 1) 세계로 가는 동국팀 : 총 9개팀 선발 (해외연수 비용 200만원 지원)
- 2) 알찬 문화생활팀 : 총 10개팀 선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증정)
-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 접수기간 | 2005. 4. 1.(금)~4. 12(화) 09:00~17:00.

▶ 접수처

-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 4인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회 학생복지실(본관)

▶ 공지사항

- 추모식 및 등산대회 행사 시 경건한 자세로 임하며, 4.19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 우선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 등산대회 시 출발, 중식시간 등을 엄수함.
- 도시락과 쓰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
- 시상식은 4월 19일(화) 다량관세미나실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 기념품 제작비용을 재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4.19혁명 기념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담 - '대학 언론의 정체성'을 말한다

# '변화' 통해 위상 정립해 나가야



▲황주상 동대신문사 편집장



▲전병주 DUBS 방송장



▲김성호 동국포스트 편집장



▲노영현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강선화(국교3)

△사회자=8, 90년대부터 시작된 대학 언론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학 언론이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서 그 위상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대학 언론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며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짚어보자.

황주상(동대신문 편집장)=대학 언론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도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내 다양한 주제인 교수, 동문, 직원 역시도 대학 언론에 중요한 독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주제들에게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대학언론의 역할이자 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 주제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성호(동국포스트 편집장)=무엇보다 대학 언론사의 중요한 목적은 학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하지만 8, 90년대에는 학생 운동 등에 대한 학생들의 사회적 비판 의식을 대학 언론이 진보적인 목소리로 담아냈다면, 지금은 2000년대를 사는 대학생들의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대학 언론의 경우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 정체성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병주(DUBS 방송장)=언론사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언론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이 대중에 맞춰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요 독자층인 학생들을 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성 언론과는 차별된 대학 언론만의 진보적인 시각은 아무리 학생들이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더라도 지켜 나가야 할 위상이자 역할일 것이다.

강선화(국교3)=요즘 학생들은 학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내 언론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학 언론은 언론사 내부에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언론에 대한 인식은 흥미를 주지 못하며, 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더해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선도하는 계몽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학업과 기자생활을 병행하는 학생 기자의 경우 과중한 업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 기자 개인의 문제를 떠나 대학 언론의 전문성 저하, 나아가 위기와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기자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영현(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예전에는 학생들이 언론사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대학 언론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요즘은 언론사의 일원이 돼도 그때 만큼의 자신감이나 경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에 더해 학업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언론 활동에 투자해야 하는데 학교측의 지원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선화=학교 측에 장학금 등의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공감대가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언론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강화를 외친다면 이는 자칫 이기주의로 비춰질 위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언론사 내부의 기자 부족 문제 등을 통해 점차 대학 언론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는 것 역시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본사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대학 언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현재 대학언론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이에 학내 언론사들이 상생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상을 모색해 보기 위한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은 학내 각 언론사를 대표하는 편집장, 방송장이 바라보는 현재 대학언론의 위기에 대한 고민과, 일반 학생이 바라보고 제시하는 학내 대학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편집자

개인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신문의 전반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학기부터는 인력 보충을 위해서라도 객원기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수습기자들 양성을 통해 이들을 실력 갖춘 정기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김성호=기자 수급의 문제가 학교 측의 지원 부족 문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학 언론사 내부에서도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 기자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취업이나 학점 등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영현=수습기자들의 교육 방식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학내 언론사 출신의 선배 언론인 등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나, 언론사들의 연계 세미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가 먼저 변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기자 수급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자=일부에서는 학내 언론사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언론사들이 연합을 통해 상생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현재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김성호=각자의 특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을 일률적으로 통합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는 각 언론사들이 특징을 살려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한양대의 경우 학내 각 언론사가 한

끼 웹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사만의 신속한 정보력과 영자 신문사와 교지의 기획력, 방송국의 영상이 결합된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목소리나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강선화=무엇보다 학내 언론사 홈페이지가 개선돼야 할 점은 학생들에게 인지되고 있지 않으며 접근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서 들어간다고 해도 디자인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실시간 네트워킹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지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영현=언론사들이 힘을 모아서 통합된 홈페이지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면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통합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배너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언론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병주=그에 앞서 현재 신문, 교지 등의 배부 시스템과 학내 방송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인쇄매체들의 경우 접근성이 쉬운 지점에 배포되고 있지 못하며 방송의 경우도 텔레비전이 학생회관에만 설치돼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학생들 속으로 가고 들어갈 수 있는 배포나 방송 시스템의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사회자=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재 학내 언론의 전반적인 문제와 대안까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담이 허울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에 직면한 각 언론사들에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정리=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창간기념 축하

## 동약의 역사 만드는 동대신문 기자들

형광등 불빛이 수술실에서 나와 잠에 빠진 의사의 가운데처럼 창백하다.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의자에서 일어나 커피 자판기가 있는 입구로 향한다. 아까 2시까지만 해도 시끄럽던 신문사는 조용하다. 여기 저기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기자들. 그리고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들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는 빈 컵라면 그릇들.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중앙도서관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아슬아슬하다. 그러나 4월의 공기는 아직도 차다. 이리다가 아침에도 끝나지 않는 건 아닌지, 힘들겠지만 깨워 서라도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날 때 편집장이 나온다. 눈이 별갈다. 벌써 이틀째 밤을 새운 탓이다. "잠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 "예. 그래야지요." 맥없는 대답을 뒤로 하고 화장실로 가는 뒷모습이 파지처럼 힘듭니다.

편집실 유리벽에 걸려 있는 최종 교정지는 아직도 4면. 이번 호는 총 8면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보니 지난주 특집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쏟았던 것 같다. 눈을 감는다. 몇 분이 지나갔을까. "주간간, 5면 나왔습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잠시 좀 붙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역시 잠을 떨쳐 내리는 듯 문을 열고 나간다. 자체 편집회의와 두 번의 정식회의를 거쳐 교내외를 1주일 내내 뛰어다니며 작성한 기사들이 교정지 위에 깨알처럼 펼쳐져 있다. 8시 30분. 이제 한 면만 더 나오면 이번 호 작업은 끝난다. 벌써 몇 잔째 마신 커피 탓에 공복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국장님과 함께 최종 교정지 8면을 살펴본다. 눈을 황사가 들어간 듯 따끔거린다. "국장님, 이건 제목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편집장, 2단으로 나누고 좀 키워는 게 어떻겠어?" "예? 전 이게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 편집장 의견이 그렇다면 그대로 감시다." 마침내 끝났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부국장님, 우리 내려가서 뜨거운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들 해주세요. 자, 다들 감시다." "아닙니다. 저런 종래를 하고 내려가야 하니 먼저 내려가세요." "야, 이 독한 친구들아. 이렇게 힘든데 종래까지 해?" 일요일 오전의 교정은 투명하다. 도서관에 올라오면 어느 학생이 인사를 한다. "국장님, 그럼 우리 먼저 내려갑시다." "아닙니다. 전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그냥 갈까?"

유달리 깊었던 추위 탓인지 며칠 전에야 개나리가 겨우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래서일까. 그날 서둘러 버스에 몸을 싣느라 보지 못했던-이단 밤샘으로 까실까실한 입에 물을 털어놓고 겨우 수저를 들고 있었을-그들의 지친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아마 그들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꽃샘추위에 파랗게 질린 동약의 밤을 지키다 쓰러져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 수북히 쌓여 있는 신문 진열대 앞을 무심히 지나치는 학생들 뒤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장을 집어든다는 강의실로 향할 것이다. 동약의 어둠과 밝음을 굽어보는 거대한 나무로 우뚝한 동대신문의 55년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동약의 역사를 만드는 그대들의 헌신과 고통은 그래서 아름답고 찬란하다. 동약의 푸른 나무들이여.

고재석  
본사 전 주간·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접근방식 변화로 독자에게 다가가야

## 2003 설문조사 비교 ... 구독률 · 관심 낮아져

본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문 창간 55주년을 맞아 우리학교 학생 396명 (3.08%, 1·2학년=186명·3.06%, 3·4학년=210명·3.09%)을 대상으로 동대신문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 I 구독 · 접근성 부분

평소 동대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30%에도 못미치는 23.74%로 나타나 신문 구독률저하에 따른 대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로 나타났던 구독률에서 절반이상 낮아져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는 '학교 정보를 얻기 위해'라는 답변이 36.1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24.47%), '우리학교 신문이기 때문에'(22.3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52.98%가 '신문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몰라서'라고 대답해 현 신문 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신문이 언제 발행되는지를 알지 못해서(16.56%)', '동대신문을 통해 얻을 정보가 없어서(11.26%)'라는 의견에 상당수 학생들이 동의해 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과 정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배포방식, 홍보 등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신문은 중문, 후문, 동국관, 상록원, 중앙도서관 앞 등에 위치한 배부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들 배부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77.78%의 학생이 배부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위치

가 잘 안아서'(43.84%)가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이어서 '크기가 작아서'(26.30%), '색이 어두워서'(18.18%)라고 응답한 학생도 다수였다.

현재 동대신문 배부대의 위치파악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복수응답 가능), 가장 잘 인식되고 있는 곳은 중문으로 나타났으며 △후문 △중앙도서관 앞 △동국관은 약 20%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상록원의 배부대는 11%의 저조한 인지도를 나타냈다. 그나마 학교를 오래 다닌 고학년일수록 배부대의 위치를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지니지는 않았다.

때문에 학생들의 64.39%가 '배부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배부대가 필요한 장소로는 '학내 각 건물 입구'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49.80%로 절반에 다다랐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 매점 주변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27.06%였다.

### II 독자참여 부분

우리신문 여론면에 글을 기고해본 학생은 전체의 4.04%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한 학생 중 50%의 학생이 우리신문의 독자투고란(열린글터)을 보고 참여했으며, 나머지 50%의 학생은 '청탁을 받아서'(31.25%), '주변인의 추천을 통해'(12.5%), '동대신문 홈페이지를 보고'(6.25%)

참여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여론면이 두면임을 감안했을 때 일반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독자투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동대신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2.11%로 가장 높았고, '독자참여란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해서'(26.32%)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 '신문 참여에 대한 부담'이 13.67%, '참여방법을 몰라서'가 13.16%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무관심'과 '방법을 몰라서'가 70% 이상을 차지했던 지난 200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여론면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독자투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III 동대신문 홈페이지 부분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홈페이지 인지도와 참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약 90%의 학생들이 배부된 동대신문을 접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문을 접하는 학생은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접속경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가 51.78%로 가장 높았으며 홈페이지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35.10%의 학생이 '기사를 빨리 업데이트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홈페이지 디자인이 나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22.5%에 이르렀다.

### IV 전체 지면평가 부분

그렇다면 독자들은 우리 신문의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먼저 정보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79.23%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85.16%의 학생이 '공정한 편'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도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어느정도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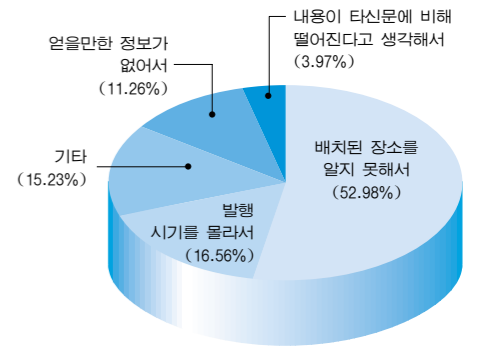
그러나 '참신성'과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 정도에 있어서는 각각 약 25%, 32%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기사 선별에 주의할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지면은 종합·보도면이 30%에 이르렀으며, 문화면(18.10%), 기획취재면(14.84%), 학술(13.35%)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가장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기사는 학내보도가 32.05%로 가장 높았고, 여론·칼럼이 18.99%로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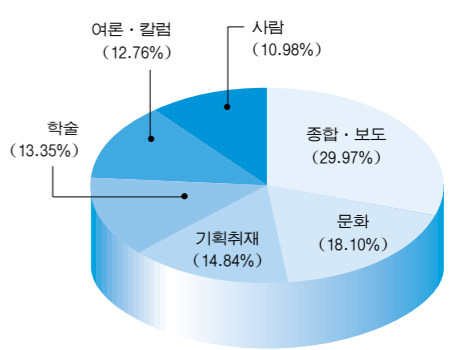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면에 추가됐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정보가 32.05%로 1위를 차지, 학과 소식이 28.19%로 2위를 차지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 동대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 ● 가장 많이 접하는 지면은?



## 동대신문 창간기념 축하

### 꼭 필요한 매체기능 할 것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동국의 소식 을 전해주는 동대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 1950년에 창간되어 어려운 시기에도 동국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동국역사를 기록해 왔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학생기자들의 희생, 봉사, 사명감에 힘입어 더해져 이루어져 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오랜 역사는 자랑이면서 동시에 역사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문'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니 종합 11개, 경제 7개, 스포츠 5개

등 총 38개의 신문이 튀어 나온다. 이렇게 다양한 신문들 중에서 동대신문의 진정한 가치와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교내 조직 간의 갈등을 균형있는 관점과 객관성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언론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최근 대학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수준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 확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국제화 추진, 대학평가 기능 강화, 구조조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모대학은 제주에 분교 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지역 4개의 국립대학이 통합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우리대학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변화에는 대부분 갈등이 따르고, 이러한 갈등은 발전과 퇴보 모두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동국인 모두가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홍수'에서 동국인의 삶에 꼭 필요한 매체로서 당당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신하균(교무처 교무기획팀 과장)

### 미래 내다보는 신문 왜야

동대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았다. 결코 순탄치 못했던 현대사 속에서 대학언론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동대신문이 이제 55년의 연륜을 쌓아 오게 된 것은 대학의 여론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편집진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학내 3주제인 학생-교수-직원의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 학교 경영진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동대신문의 존재 역시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대학언론의 역할이 늘 달라졌던 것 같다. 순수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도 있었고, 한국사회

의 변혁을 꿈꾸는 혁명적 여론지를 표방할 때도 있었다. 대학공동체를 넓은 의미의 지역공동체로 보아 학내 3주제 뿐 아니라 지역민과 학부모까지를 광의의 독자로 설정한 대중신문으로의 변화도 시도되었다. 대학언론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당이었느냐는 판명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대학언론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할 것이고, 더욱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동대신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개혁의 격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대학언론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대학의 존재마저도 가능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보면 앞으로 몇년 사이에 대학의 순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대학들이 도태될 것이고, 개혁의 거친 파도를 넘은 몇몇 대학의 위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새로운 페라다임, 기존의 사고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고서는 격변의 대학개혁기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동대신문은 그 선도에서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책임이 무겁다.

역사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했다. 동대신문 창간 55주년이 동대 100년을 준비하고 또 다른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병민(국문 96졸, 92년도 본사 편집장, 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팀)

### 학보가 터야 할 새로운 통로

시대와 대학인들의 팬데로서 불꽃같은 소명을 다해온 동대신문의 창간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그러나 55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세월의 무게는 동대신문의 자랑스런 역사를 돋보여줄 뿐 아니라, 그 만큼의 무거운 사명감을 동대신문에 부여할 것이다. '매체의 홍수'라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매체 다원화는 대학신문의 희소성과 독자적 의제설정 능력을 낮추고 있고 그 결과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우러가 아닌 현실로서 대학언론인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학보들은 지난 세월 각 학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왔으

나, 오늘날은 외부매체의 침투와 대학사회의 이슈 감소 등으로 공식매체라는 위상에 마냥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해지는 독자의 가치관과 취향에 맞추어 과연 학보사들은 자신의 지향점과 가치관에 대해 심도 깊은 변화의 고민과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원론적이고 뻔한 말이긴 하나 이 말은 정답이다. 아니 학보에게 있어 위기는 기회여야만 한다. 학보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경우 학보는 학보에 상시적 구독료를 납부하는 학내 구성원 모두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등불이며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무거운 소명을 생각하며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금 반추해 본다면 학보가 다루어야 할 소재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학내의 곳곳에 산적해 있을 것이다.

학보는 존재 자체로 이미 그 위상이 정해지는 매체이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여론소통의 중심지로서, 학내 다양한 사건과 정보들에 대한 판단자침으로서, 대학사회 내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내는 공기(公器)로서 동대신문이 지니온 세월의 무게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동국사회의 바른 지표설정의 중심에 서는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리라 기대한다.

정태호(연세춘추 편집장)

보리소

소승과 대승

한국은 대승불교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대승운동 자체는 그 역사상이나 실체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다만 부파불교가 가졌던 형식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던 것은 확실하다. 대승이란 마하야나, 즉 큰 수레라는 뜻이다. 부처님가르침을 수레에 비유하고, 스스로를 위대한 수레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승은 작고 열등하다는 뜻이며, 대승에 의해 부처진 이름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해종의 '외우전축국전'이나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는 9세기, 7세기의 인도불교 모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느 지역은 대승불교가 성하고, 또는 어디는 대승·소승이 공존한다는 기록이다. 즉, 인도불교에는 대승시대, 대소승 공존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소승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파를 지칭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어느 누구가, 자신은 작고 열등하며 상대방은 크고 위대하다는 공언을 하겠는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승이라는 용어를 매우 잘못 쓰고 있다. 동남아시아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례이다. 태국이나 월남사람들이 우리말을 못 알아 듣기 망정이지 따귀맞을 연사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테라바다(Thera vada) 즉, 장노불교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법을 가장 잘 보전하고 발전시켜온 불교라는 뜻이다. 그네들의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의 불교가 정통이 아닌 듯이 비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승은 어느 지역의 불교라는 뜻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불교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이단적 불교에 대한 비판으로 써야만 한다. 불교에는 국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국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जू적 진리를 표방하는 불교의 세계에서 초차 민족주의, 감성주의가 깃들여 있는 점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정병조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우리 학교의 변화와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금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구성원 전체의 단합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동대신문은 동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총장의 편지'를 특별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금부터 100년 전, 나라의 앞일과 겨레의 운명을 염려하시던 불교 선각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두 번씩이나 폐교를 당했던 유일한 민족 사학이었으며, 4·19 때에는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정의의 산실이었습니다. 머리 속엔 언제나 진리와 정의를 준비해 두고, 가슴 속엔 조국과 겨레 향한 더운 피를 간직했으며, 또한 손과 발은 자비와 이타행을 늘 실천해왔습니다. 이것이 동국정신의 요체입니다.

우리 동국정신은 단 한 번도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역사의 후미진 곳에 뒤쳐져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이번주간에는

4·19의거를 기리는 등산대회가 15일 북한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날은 우리 '동대신문' 창간 5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웃음을 다잡아 선배들을 기리고, 폐기가 찬 정의로운 필봉의 전통을 다 함께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요즈음 지난 100년의 뒷발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불철주야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이

북극점에서 날아 온 소식 ④

“총도 버리자 무거워 죽겠다”

박영석 동문은 본교 주최로 일년 앞둔 건학 100주년을 빛내기 위해 북극점 등정을 시작했다. 이에 본사에서는 동아닷컴에 협조를 구해 최근의 근황을 전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공기를 원 부탁드립니다.

▶ 4월 3일 원정 26일째 : “총도 버리자 무거워 죽겠다”

원정대는 하루 두끼만 먹는다. 아침, 저녁으로 텐트에서 ‘정식으로’ 냉동 건조시킨 밥과 국을 끓여먹고 낮엔 그냥 서서 비스킷과 초콜릿만, 여기에 영양음료를 먹는다. 2번, 서서 먹는 이유는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 각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려바라. 식량과 연료도 줄인다. 며칠동안 끔찍거리며 끌고 온 식량주머니와 뚜껑을 따지도 않은 휘발유를 내려놓자니 아쉽기 그지없다. 북극 얼음 위에 내려놓는다고 그냥 막 버리는 것은 아니다. 모두 모아 알아보기 쉽게 빨간색 주머니에 담아 최대한 높은 얼음 언덕 위에 올려놓는다. 남극에선 원정대가 60년 전에 다른 원정대가 남겨둔 비스킷을 먹고 연명했다는 기록도 있다.

▶ 4월 4일 원정 27일째 :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본다”

장장 4시간동안 사방천지를 구분할 수 없는 난빙에서 헤맸다. 4시간의 험투 끝에 뺨뺨한 얼음 평원이 나타났다. 평평한 얼음판이 아니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끝이 안보이게 어마어마하게 뻗은 리드가 탁하니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처음 본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짐작컨대 너비가 수십Km는 되는 것 같다. 우리 앞쪽으로 점점 폭이 좁아져서 다행히 조금만 동쪽(오른쪽)으로 가니 한 2km 되는 것 같다.

공포의 고무얼음이 아직은 살아있다. 시험

삼야 박대장이 올라서니 휘황황청거린다. 등골이 오싹하다. “어찌한다?” 살살 그리고고 조심 조심. 한발 한발. 2km의 고무얼음을 40분이 나 걸려 무사히 건넜다.

▶ 4월 5일 원정 28일째 : 여긴 백야

이틀 전부터 GPS는 원정대가 있는 곳을 백야라고 알려주고 있다. 처음 83도에서 출발할 때 해가 오전 7시 29분에 떠서 오후 3시 11분에 내려앉았다. 겨우 7시간 42분. 이게 하루에 28분에서 32분까지 매일 늘어나더니 드디어 해가지지 않는다. 백야가 왔건만 아직 태양의 위력은 바람과 추위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다. / 철매가 무거워진 탓에 가법계(?) 85도를 돌파할 때보다 속에서 땀이 두 배는 더 나오는 것 같다. 이걸 그대로 옷 속에서 얼음 덩어리로 변한다. 얼음 갑옷 또 시작이다. 한달 가까이 얼음 위에서 지내다보니 몇 달동안 잘 먹고 배에 만들어진 체지방이 다 닳아났다. 뺨뺨하던 옷들이 헐렁해져서 굵주린 북녘동포 비스무레하다.

▶ 4월 6일 원정 29일째 : ‘이번엔 고추장 돼지 불고기’

특별히 비계가 많은 부분을 주문했는데 캐나다에선 목살은 구해볼 수 없다고 한다. 그 맛있는 걸... 하여간 비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골라 500g씩 6개를 가져왔다. 하나는 물론 85도 때 이미 해치웠고 위스키와 푹같이 5번 먹게 남았다. 오늘은 이 돼지고기를 서울에서 공수한 갖은 재료가 다 들어간 볶음 고추장에 넣어 고추장돼지불고기를 했다. 정말 이 고추장 때문에 힘이 나는 것 같다. / 첫술집은 하나 구요? ‘Never’. 첫술은 한보따리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얼어붙어서 입에 집어넣으면 마치 나뭇가지로 그냥 푹푹 찢는 것 같아 아예 포기했다. 대신 대원들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하루에 한통씩 나눠가진다. 껌이 양치질인 셈이다.

총장의 두번째 편지

새로운 100년 희망의 학생들에게

사이애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께서 함께 서 계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면화 분위기는 총장인 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희망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대학이 민주화 투쟁과 사회 정의의 실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가장 청렴한 도덕률은 우리 학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국 대학 역사 자랑이자 공헌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

학의 분분과 사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가 요구하는 실력 있는 인재 양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교육 소비주체들에 의해 선택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장으로서의 직분은 이런 시대적 요청을 그 어떤 가치에 앞서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산더미 같은 자료를 쌓아놓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책상 위에 지쳐 쓰러진 얼굴, 꺾기 가신 입술이 비록 안쓰럽기는 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잠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주체념해도 모든 아버지들의 자장가를 나직이 읊조려보기도 합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특별 기고문

교수들이여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교수회가 총장을 선출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교수회-총장’ 체제가 출범한지 17년째에 접어들면서 총장과 교수회 간에 성명전이 시작됐다. 이번의 적신호가 현 체제의 구조상의 문제인지 운영의 미숙인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전화위복의 방안을 찾아볼 때가 온 것 같다.

‘평교협’으로 출범한 교수회는, 80년대 후반기에 4년에 걸쳐 재단을 향해 ‘우리가 총장을 선출하고 도울 것’임을 수없이 다짐한 끝에 총장후보추천권을 받아냈었다. 교수회는 총장을 재단에게 시집보낸 친정 부모의 자세로 학교기본계획과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을 입안 때부터 논의하여 총장에게 자문한다는 기본 정신을 교수회규정에 명문화했다.

교수회 규정을 만들 당시 동국교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돌이켜 보면 교수회가 좀 더 분발해서 병원의 신설이나 확장, 총장이 바뀔 때마다 학과의 증설 등, 산으로 보냈어야 할 정책도 많았던 거 같다. 총체적으로 교수회는 이론 것보다 못 이론 것이 더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교수회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어서 학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가 애당초 어려웠다.

교수회의 총장에 대한 보필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면서 교수회가 총장에게 둘러싸인 골레에 관해서는 배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총장은 인사에 있어 능력보다는 눈공행상도 해야 했을 것이고,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교수회 자체의 개혁이라는 짐은 총장에게는 너무 무거웠을 것이다.

이상의 평가만을 기준으로 현 사태를

들여다 보면 우선 교수회는 학교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좀 더 진지하게 간여하고 의견을 제시 해야 했다. 한편 교수 평가는 오래전부터 실시돼 왔는데 이번엔 큰 소리가 난 것을 보면 학교당국은 행정상의 미숙을 드러냈다고 본다. 예컨대 성과급을 보급인상분으로 총당하기보다는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교수회에서 제시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물론 총장은 애당초 개혁에 관해서는 재단의 힘을 빌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 이번의 사태는 교수회가 제안한 대로 토론회를 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교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총장을 더 잘 보필하기 위하여 ‘교수회 규정’의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정책들의 사전적인 연구에 더하여,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했으면 한다. 차기 총장은 개혁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수회는 교수회의 골레로부터 자유롭고 정치적 능력도 탁월한 후보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회장과 대의원들의 임기를 더 늘리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총장이나 교무위원 수준으로 높여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교수회 집행부가 장차 기획실장이나 교무처장 같은 핵심부서장의 산실이 되었으면 한다.

박강식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봉사활동수기

우리동네 톤도 발룻!

우리학교 윤인영(국제4) 학생이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필리핀 톤도에서 세계청년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윤인영 양의 현지 봉사활동과 관련한 수기, 활동 사진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이 곳에 온지도 거의 한달이 되어 간다. 이전 이곳의 시끄러운 공기, 누런빛의 물, 물을 받아 내려야 하는 뚜껑 없는 변기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처음 이 곳에 왔을 때에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놀랐었다.

특히 이 곳은 물이 안 좋다. 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심할 때에는 수도도의 물을 사용하는 대신, 미리 받아놓은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물의 상태 또한 좋은 것은 아니다. 막 이곳에 왔을 때 물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다. 그래서 받아 놓은 물을 사용했는데, 저 밑에서는 울창이 처럼 생긴 작은 물체가 헤엄치고 수면에는 먼지와 이물질이... 하지만 무더운 날씨엔 이런 물의 상태를 잊게 만들었다. 워낙 따끈 따끈하게 씻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아마 시도조차 못했을 것을!

이 곳에서는 한국에서 듣기만 했던 시끄러운 공기를 항상 맡을 수 있다. 시끄러운 공기의 발원지는 내가 머물고 있는 기관 가까이에 있는 smoky mountain(쓰레기산). 내 방은 기관의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라서 바람이 잘 분다. 따라서 쓰레기 산으로부터 바로 전해오는 상큼한(?)공기 또한 풍부하다. 때때로 냄새가 심한 날이 있는데, 처음에는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있다는 말이 맞는 듯.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길에는 쓰레기와 배설물이 아무렇게 나뒹굴고, 고여 있는 물은 아주 썩다. 그래서인지 파리와 모기가 아주 많다.

또한 이곳의 바퀴벌레는 슈퍼사이드다. 한국의 바퀴벌레의 5~6배의 크기이다. (큰 때미와 비슷한 크기?) 때문 날기도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기어 다니는 것만 보았다. 언젠가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난 도마뱀과 동거중이다. 아주 작은 도마뱀을 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내방에도 여러 마리가 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해서 소리라도 내면 바로 도망가는 녀석이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만큼은 아주 좋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동안 아이들이 기관의 때문에 매달려 “ate inyoung! ate!!”(ate:우리나라로 치면 언니, 누나)을 연신 외쳐대며 나를 반겼다. 제대로 나의 이름을 발음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보려고 그저 외쳐대는 꼬맹이들이 귀엽고 또한 고마웠다. 동네사람들 또한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낯선 이방인을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말은 잘 안통해도 그들의 진심은 느낄 수가 있었다.

따뜻한 사람들 덕에 이 곳의 특별한(?) 환경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한 한국을 그리워할 틈 없이 톤도 발룻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다.

윤인영(사과대 국제4)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환
주최: 동대신문
주관: 동대신문
편집장: 정경훈
편집부: 황주상
인터네트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네트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80-3491 · 2 부서 홈페이지

금주의 식단

Table with 6 columns: Day (월/화/수/목/금), Dish Name, and Quantity. Rows are categorized by '동국국' and '상록원'.

메아리

일기검死(?)

▲“선생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지난해 개봉한 ‘여선생vs여제자’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다. 주인공인 여선생과 여제자는 한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 인해 둘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이 영화의 초점은 사랑쟁탈전이 아니다. 외롭게 자라 선생님에게 관심을 끌고 싶던 여제자와 이 생이 벌이는 코믹 영화다. 결국 둘은 나중에 대화로 오해가 풀리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사의 초 등학생 일기검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동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이 교육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글쓰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어린이의 사생활과 양심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일기쓰기 검사를 단순히 글쓰기 차원으로 보면 위 문제제기는 성립된다. 하지만 일기는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가 아니다. 교사가 일기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점수 매겨 상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기는 어린학생들의 말 못할 고민과 생각을 듣고 교사가 이에 따라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향역할을 한다. 어린학생이 교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사전달의 창’ 역할도 할 수 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강압적이고 억지로 하는 숙제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만큼 어느 정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들의 자유의 지로만 과제를 맡기기에에는 무리가 있다.
▲일기의 장점을 살리려면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어린학생들에게 ‘일단’ 쓰라는 인식과 사생활공개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요구하면 안 된다. 평가도 안 된다. 과거를 남기고 돌이켜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라는 부분을 어린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한다. 지도의 몫은 교사가 짊어진 채 말이다.

황주상 편집장
hjs0228@dongguk.edu



# 우리 몸의 어떤 세포도 만들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 인간의 노화현상 · 암발생 설명가능 ... 난치병 치료에도 이용



### 배아복제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21세기 학두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물리학이 20세기에 등장하며 과학발전을 주도하였다 생각한다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21세기의 과학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과학은 앞으로의 인류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990년 미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함께 시작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인간이 가진 모든 유전자(gene)의 위치와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한 연구계획으로 2001년 2월12일 인간 게놈 지도 완성(99%)을 공식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그때까지 10만여 개로 추정되던 인간의 유전자가 2만6천에서 4만개로 밝혀졌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 게놈과 프로테옴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인 게놈(genome)은 한 생명체가 지니는 유전자 세트를 말한다. 게놈은 생명현상의 유지 및 모든 형질의 발현에 필요한 하나의 단위로 '생명현상을 결정짓는 유전자들의 총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인간의 염색체는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 즉 23쌍의 서로 다른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23개의 염색체 세트를 게놈이라 하고 n으로 표시한다. DNA(deoxyribose)는 아데닌(adenine:A) · 구아닌(guanine:G) · 시토신(cytosine:C) · 티민(thymine:T) 등 4가지 염기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유전정보 물질

을 담고 있다. 이 조합은 각 염기에 따라 4종류의 뉴클레오티드를 가진다. 이 4종의 뉴클레오티드(nucleotide)가 무수히 많이 연결된 것이 DNA이므로 4종의 뉴클레오티드 배열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DNA가 만들어진다.

이 DNA의 분자구조는 1953년 미국의 J.D. 왓슨과 영국의 F.C. 크릭에 의해 해명되었다. 2중나선(double helix) 구조로서, 뉴클레오티드의 기다란 사슬 두 가닥이 새끼줄처럼 꼬여 있다. 이 사슬은 각 생명체의 생명활동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각 개인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1995년 마크 윌킨스가 Protein(단백질)과 Ome(전체)를 합성하여 프로테옴(Proteome)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세포에 적이 침투하거나 세포가 분열할 때 등 환경이 변할 때마다 단백질이 대응하는 방법이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정의한 용어이다. 이것은 인체 내 프로테옴의 모든 것을 밝혀 인간 생명작용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프로테옴 프로젝트이다.

사람의 세포마다 들어있는 염색체 23쌍에서 염기쌍 30억 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이 중 유전 암호를 담고 있는 염기쌍의 진화적 유전자 3만 5천여 개의 지도를 만드는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게놈이 생명의 표준설계도라든가 이 표준설계도와 개인 및 특정 집단의 설계도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밝혀야 특정 질환과 유전자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또 질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체내 대사에 관계하는 단백질의 활동과 기능을 조사해야 한다. 프로테옴 프로젝트와 게놈 프로젝트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암 조직에는 있지만 정상조직에는 없는 단백질을 찾아내 거꾸로 추적해 가면 게놈의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게놈을 통해 정상 유전자와 암 유전자의 차이를 알아낸 다음 암에 걸렸을 때의 프로테옴을 알 수도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빼대려면 삶을 불리고 내용을 채워 넣는 실질적인 작업이 바로 프로테옴 프로젝트다.

###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생명

이러한 생명공학의 발달은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 실험실에서의 직접조작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생명복제-인간복제이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해 14일 정도 자란 세포 덩어리이다. 장기형성 단계까지가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생명체로 인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보수 측계에서는 수정란 추가부터 생명체로 간주한다.

줄기세포 일명 간세포라고도 하며 수정 14일 이후부터 간이나 폐 등 구체적인 장기로 자랄 수 있는 단계의 세포 덩어리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때부터 생명체로 생각한다. 배아 세포가 혈액이나 신경, 근육 세포 등으로 발달되기 전 단계인 간

세포(stem cell)를 이용할 수 있다. 환자의 세포를 복제해 복제 배아를 만든 뒤 여기서 간세포를 뽑아내 신경세포 등으로 키워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파킨슨병으로 죽은 뇌 신경 세포나 화상을 입은 피부세포,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의 췌장 세포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배아 줄기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면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규명하면 인간의 노화 현상을 설명하고,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밝혀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혈액암이나 난치병의 치료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세포이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 다시 생각하는 생명의 존엄성

그러나 인간 생명 연장의 도구로서의 생명을 이용하는 기술이 단순히 인간 배아 복제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인간의 도량과 호기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체복제 즉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대에 따라 과학기술은 많은 논란과 쟁점을 만들어 왔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이용하는 현재의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9@dongguk.edu

# 수정세포배아, 생명인가 아닌가

생명공학은 초기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기근을 해결하려는 선한 의도가 생물학자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으며 또한 시대적 사명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절대적인 빈곤을 완화시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가뭄에 강한 식물종자의 개발과 영양을 강화시킨 작물들이 생명공학의 빛나는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공학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성찰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생명공학은 새로운 연구대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대상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규범적 인간이다.

### 생명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

인간생명에 대한 논의는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뇌사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상대화는 시작되었다. 법적으로 타협한 결과는 뇌사를 심장사와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뇌사논의는 승낙의 주체가 분명한 경우 크게 기준의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배아의 생명, 즉 초기 생명 보호의 논쟁은 전혀 다른 차원을 형성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간의 구분적인 취급을 사회적으로 승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요컨대 생명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의 구분을 인정하는 견해와 구분없는 생명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견해로 나뉜다.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생명에 대한 구분기준은 지적능력의 유무와 의사소통에 대한 합의가능성 마지막으로 생명의 절대성이 기준이 된다.

먼저, 인간 생명에 대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주장은 '인간은 인식능력의 여부에 의해서 선별될 수 있다'는 논증이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도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점을 인지능력이 갖추어지는 출생 이후의 시점,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생후 3개월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견해들은 예외 없이 비종교적인 세속화된 국가의 체제 또는 합리적·이성적 성찰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거론되는 관점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시기를 철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되는 생명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해들은 이 견해에 많이 동조하고 있다.

영국이 14일 미만의 체외 수정된 냉동 배아를 실험할 수 있게 결정한 근거는 사실 '14일 미만'이 갖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다. 수정이 개시된 후 착상전 배아는 14일이 지나면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발생한다. 이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조직이 발생한 시점으로 인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14일 미만의 배아에 대한 실험 허용은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한 위의 견해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절대성에 대한 논의이다. 절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명을 수정시부터 인정해야 한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아니면 다른 근거에서건 이 견해는 현재 합의가능하다는 입장과 동일하다. 생명공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배아 연구를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제한이다.

배아가 인간으로 선언되면 극단적인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배아 줄기세포의 이용과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체실험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법과 도덕의 구분논의가 한창일 때 도덕과 법의 분리논의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법은 도덕과 구분된다는 법철학적 논의가 실제로 법과 도덕 간의 성향 차이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방법의 차이를 다른 것인지는 심각하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소박한 수준에서 법과 도덕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과 도덕은 분명히 다른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서 기능하는 원리는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 윤리는 결국 사회규범이며 사회규범의 명문화가 바로 법인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생명윤리는 사회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형사정책적 강제는 단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형사법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형사정책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으나 최종적인 규범위반의 확인과 그 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법적 개입의 근거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 불쾌감이나 도덕적 실망감, 또는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서 직접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일반인들의 일상적 관념에 자리잡을 수는 있지만 형사정책적 개입의 근거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성된 법의관계에 반응하는 법이므로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의 결과로 생명 윤리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사정책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초기 생명 보호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시대적 재확인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과거 정치적·사회적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인간의 존엄성 물음은 오늘날 순수 생물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있다.

생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류가 처한 환경은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건강한 삶의 보장은 모든 인류가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태어나야 할 사람들에게 희생 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배아 생명권을 존중하는 배려는 결코 생명공학의 미래를 막는 행위가 아닌 생명공학의 인간성을 회복해주는 시도이다. 그로 인하여 사회에서 인간이 갖는 의미와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시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를 위해서 가져야 하는 형사정책의 입장은 이성적이고 현명해야 한다.

최관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 내가 읽은 책 이야기



김유경 (사과대 신봉4)

## 한 사회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깨달음을 주다

해 철저히 무시하였고,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로서의 신화'의 세계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이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타나는 티아마트 여신의 신화이다.

하늘 신 아누는 어머니 티아마트(바다의 여신)의 몸을 혼란시킴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만들어 내었고, 티아마트는 생명을 주는 어머니에서 죽음을 주는 웅으로 바뀌게 되어 이 세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티아마트는 점점 더 욕이 올라 무서운 괴물들을 탄생시켰고, 왕좌를 약속받은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녀의 '몸'을 이용해 세상을 창조한다. 생명을 창조하고 보호하는 여신이 어떻게 파괴의 신으로 변형되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비록 마르둑이 티아마트에게서 창조자의 역할을 '빼앗았지만', 우주의 재료가 되는 티아마트 없이는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늘 신화가 좋았다. 좋다는 감정이 곧장 다독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신화를 믿었던 과거는 모든 자연현상을 공식화 해버리는 지금보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살림출판사에서 나온 장영란의 '위대한 어머니 여신'을 읽으며, 잠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학문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해체하고 분석하는 것에 '좀 뻥한 얘기가 아닌가?' 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또 이 책이 서너 시간이면 족히 읽을 자그마한 문고임을 감안하면 꽤 커다란 과장이다.

사라진 여신들의 역사라... 처음에는 사라진 이유 보다는 왜 사라진 것을 기록해야만 하는지 가 더 궁금했다.

저자는 한 사회의 제도와 관습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신화에 적용되면서 불변의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가졌고, 그러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신화 속에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문명권 신화들이 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랬다. 나는 한 번도 메두사를 비롯한 흉측하게 변형된 괴물들이 왜 여자인지, 왜 살해당하고 삼켜 임머의 남성의 영웅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 전락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다.

신화적인 상상력을 동경하면서도 그 신화의 이면에 감추어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소외에 대

###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지음, 을유문화사, 2004.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의 계수지동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계급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가? 그것이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사회과학실 소장. (305.5 신168)

#### 콘클라베 : 바티칸의 비밀회의

존 앨런 주니어 지음, 김하락 옮김, 가산출판사, 2002.



교황의 서거로 현실로 대두된 다음 교황의 선출에 관한 전세계 추기경들의 회의, 콘클라베. 그 선출과정과 쟁점, 그리고 후보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인물에 대한 고찰이 실려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 '천사와 악마'와 함께 보면 더 흥미가 있을 듯.

인문과학실 소장. (262.165 A427c김 - 보조도서)

#### 나에게 맞는 운동과 건강관리

윌러 볼파르트 지음, 문운덕 옮김, 예신, 2002.



요즘 웰빙 바람과 함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체력조건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의 적이 될 수도 있다. 2002한 일 월드컵 독일 축구대표팀의 팀닥터 윌러 볼파르트 박사가 밝힌 비만 예방법과 다이어트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몸짱준비, 끝!

자연과학실 소장. (613.71 M947m문)

#### 사찰에서 만나는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지음, 대한불교진흥원, 2005.



불교미술은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뿐 만 아니라 사찰의 의미부터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자료. 얼마전 산물로 소설인 낙산사 원통보전의 모습도 실려 있다.

불교학자료실 소장. (218.77 동17나)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대학기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사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 ① 봉사부문      ④ 음악부문
- ② 건축부문      ⑤ **르포**
- ③ 미술부문      -난지도 월드컵공원

추위가 한풀 꺾여 봄 기운이 만연한 휴일 오후, 삼삼오오 모인 가족·친구단위가 삼암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각자 작은 보따리를 챙긴 그들의 행렬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에까지 이어진다.

한강에 다다르는 확 트인 평지에 불쑥 솟아오르면서 나무와 숲으로 우거져 있지도, 봉우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산. 많이 높지 않은 동네 뒷산 같은 이 산이 불과 10년 전만해도 세상의 온갖 쓰레기투발터였었다고 누가 상상할 것인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난지도'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삼암 월드컵 경기장과 더불어 개발돼 '월드컵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두 개의 산은 각각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주변에 난지천 공원, 난지한강공원, 평화의 공원 등도 조성돼 105만여 평의 거대한 공원단지를 이루고 있다.

# 재생의 땅 '난지도'에 가다



그는 운동삼아 매번 하늘공원에 올라오지만 그 때마다 변화된 모습에 놀라곤 한다.

난지도는 급격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대표적인 어두운 그림자였다. 1978년 당시 잠실, 구의동, 상계동 등의 소규모 쓰레기 매립지들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새 매립지를 찾게 됐고, 도심의 외곽이면서 교통이 편한 난지도가 다음 장소로 채택됐다.

그 때부터 92년10월까지 15년간 이 곳에는 건축폐자재부터 가전제품, 각종 생활쓰레기 등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분별없이 매립되기 시작해, 총 9천 200만 톤의 쓰레기가 높이 90m의 산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난지도에는 재활용공장이 있고 주로 병마주들이 주변에서 생활했었어. 그 때 나는 망원동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어 놓으면 화력발전소와 난지도에서 날려오는 먼지 때문에 빨래가 까맣게 더럽혀지곤 했지."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상만(62) 씨는 아직도 생생하게 쓰레기 더미의 난지도를 기억한다.

산에 오르기 전,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하늘공원 정상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풍력발전기'이다. 강바람이 많이 부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하늘공원 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충당한다. 환경친화적인 난지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SLOW! 북방산 개구리 출현지역'. 산책로를 따라 걸다보면 개구리 그림과 함께 녹색 팻말에 씌여있는 이 표어가 보인다. 난지도에 다시 풀이 돋아나고 물이 흐르면서 야생동물 또한 다시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생태공원의 조성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과 나무, 새,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곤충 등을 접할 수 있게 했다.

하늘공원 정상. 그 곳에 있는 식수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을 마신다. '마셔도 괜찮다'라는 안내글과 별다른 의심없이 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모습이 난지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이용자 의식 개선돼야

그러나 공원 여기저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환경생태공원을 지향해 방문객의 일회용품 사용 지양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쓰레기더미 산의 환경을 되살려 놓았건만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공원의 일부분이 또다시 더럽혀지고 있었다.

"아무리 환경을 지킨다고 해도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37세) 씨. 하늘공원에 올라오면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갈증에 허덕일 때도 있다. 그러나 "매점을 마련해놓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야"라며 칭찬해마지 않는 이용자들도 있다. 매점이 없기 때문

### 다시 생명이 꿈틀대다

그러나 지난 93년부터 서울시는 이 곳의 생태복원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마침내 '생태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생태공원으로 재탄생되기까지는 막대한 '공'을 들여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린 것 이상의 비용과 정성만이 난지도를 이름 그대로 '난초와 지초가 자라는 섬'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설의 일환으로 현재 난지도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와 유독가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처리 시설과 매립가스 처리시설이 완비돼 있다. 이제 이 곳은 각종 악취 대신에 꽃이 피고 동물과 새들이 울어대는 매립지 이전의 난지도로 변하려는 것이다.

### '발전' 그 이면엔 ...

"천지가 개벽한 듯 하네. 예전에는 쓰레기가 굉장했지. 그런데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되고나니 주변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보이고 쉽게 운동도 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됐어. 가을이 되면 역새들도 많아 예전 느낌이 되살아 난다네." 근처에 살면서 난지도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이경호(73) 씨.

사진설명 = (왼쪽부터) 지난 15년간 난지도에 쓰레기가 쌓여간 모습. 난지도 월드컵공원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쓰레기통을 넘친다. 하늘공원 정상에서 공원 이용객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징검다리가 놓여진 난지천을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작품 속 인물 대 인물

### 사랑, 버림의 미학



낮선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싶다는 것은,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취향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부의 신호다. '열정'에서 산도르 마라이가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취향이 같은 남녀가 만나는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난다. 나와는 너무 다른 그녀와 그를.

오해와 편견은 그처럼 너무 다른 상대에 대한 그릇되고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인식의 틀을 깨지 못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근대적인 인물을 우리는 제인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만난다. 엘리자벳에게 다아시의 첫인상은 자신의 인습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자극점이 된다. 자기 것을 바꾸고 없던 것을 만들어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그녀의 사랑은 용기 있다. 그녀는 결혼에 있어 전통적인 규범보다 개인의 성품과 선택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사랑은 작품 속에서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두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며 불가능한 것들을 부정한다. 사랑의 힘과 가치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엘리자벳의 사랑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사랑은 마술처럼 다가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관습과 취향을 용감하게 버린다. 영화 '타인의 취향'에서 보여주는 카스텔라의 사랑은 봄날의 미풍처럼 잔잔하고 어린아이의 하품처럼 순수하다. 덩수룩한 수염을 깎아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그가 자신의 취향을 바꾸는 모습은 무척 폼프하다. 어느 날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안의 낮선 나와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아집과 독선을 버린다. 자아를 새로 정의하게 하는 사랑의 뜨겁고 무거운 힘은 그러나 실연의 아픔도 받아들이도록 가르친다. 카스텔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Non, je ne regrette rien' (나는 아무것도 후회 하지 않아).

사랑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몸부림, 얻고자 버리려는 집착, 불가능한 것을 실현하게 하는 의지. 사랑의 가치는 흘러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데에 있다. 부수고 탈피하고 바꾸는 과정은 현실을 대체하고 가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함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사랑은, 전장의 목마름인 동시에 인류의 줄지 않는 양식이며 목표가 아닌 목적이다. 그러므로 가졌어도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다. 의지이며 선택이고 버리는 만큼 후회게 남겨지는 그것은.

김윤경 객원기자(영화전공 석사과정)  
agikongyong@hanmail.net